

官僚病의 梧里清廉 스토리텔링 힐링

李宗秀*

■ 차례 ■

- I. 들어가는말
- II. 유가수양법과 미러뉴런의 의의
- III. 광명시 오리청렴교육관 사례분석
- IV. 梧里의 不動心과 청렴 스토리텔링
- V. 나가는 글

【국문초록】

본고는 정부 官僚病에 대한 정신적 측면의 스토리텔링 힐링 방안을 주로 유가적 관점에서 오리 이원익의 청렴사례를 중심으로 한 청렴체험프로그램 개발측면에 한정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기존의 행정제도적 측면의 병리 예방, 방지 효과가 미미하거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다는 판단 하에 행정인의 정신적 측면의 관료병 예방과 치유책 개발을 통한 치유효과를 거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저간의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부패지수는 더 나빠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OECD 국가부패인식지수(CPI) 기준 비교대상 국가들 중 부패정도가 상위

*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은 연구임(NRF-2012S1A5B5A07036390). Lee, jongsoo, Chung-Ang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Ph.D.).

** 中央大學校 行政大學院 研究教授

로 부정부패 문화가 만연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본고는 2014년 현재 정부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요인 중의 하나인 관료병의 역기능 진단과 치유방안을 조선중기 오리 이원익의 생애를 통한 오리청렴 힐링 체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제안한다. Caiden은 관료병이란 부도덕, 병폐, 질병 등으로 구성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런 병리의 개선과 예방, 치유를 위한 이론적 접근은 미리 뉴런(mirror neuron)과 공감(empathy)구조를 중심으로 오리의 삶에 배어 있었던 청렴관, 부동심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청렴체험과 힐링 프로그램을 4가지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주제어

관료병, 미리뉴런, 공감, 오리 청렴 스토리텔링 힐링

I. 들어가는 글

본고는 정부 官僚病(public service illness)에 대한 정신적 측면의 스토리텔링 힐링 방안을 주로 유가적 관점에서 道學的 행정사상을 중심으로 한 청렴체험프로그램 개발측면에 한정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기존의 제도적 측면의 병리 예방, 방지 효과가 미미하거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다(이중수, 2014.6)는 판단 하에 행정인의 정신적 측면의 관료병 예방과 치유책 개발을 통한 치유효과를 거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연구의 배경적 측면은 우리나라는 2013년 OECD 국가부패인식지수(CPI) 기준 부패 점수는 55, 투명도 순위는 46위, OECD 회원국 34개 국가 중 27위이다(한국투명성기구, 2014). 비교대상 국가들 중 부패정도가 상위로 부정부패 문화가 만연한 현상을 보여주는 국가이다(한국개발연구원, 2009 : 10). 제도적 개선(부방위, 원아웃, 감사교육원, 청렴교육, 감찰

강화, 내부 고발 등)에도 불구하고 부패지수는 더 나빠지고 있다(조규범, 2014).

上醫는 마음으로 병을 치유하고, 中醫는 음식으로 병을 치유하며, 下醫는 약으로 병을 치유한다. 마음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최근의 연구들인 미러뉴런(mirror neuron)의 공감요인을 바탕으로 그 체험요인으로서 공감과 모방을 통한 청렴체험과 청렴마인드 제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의 청렴체험을 통한 공감과 내면화에 의한 청렴문화 확산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의 방법과 범위는 먼저 필자의 선행연구(이종수, 2014.3 ; 2014. 4 ; 2014.6 ; 2014.7, 9, 12 ; 2015.1)와 학술지를 참조하고, 사례분석을 병행하였다. 치유모델의 이론적 근거로서는 유가적 수양법으로서의 증용, 공명정대, 청렴, 청백리 정신(Caiden, 1993 : 37) 등과 미러뉴런(한일조, 2010 ; 2012 ; Gallese, et al, 1996 ; Rizzolatti, et al, 1996 ; Seedhouse, 1990) 접근을, 치유와 체험 대상으로서의 우리의 청렴 체험 프로그램은 정신교육, 체험, 실무교육 및 참여 학습 등 4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안한다.

II. 유가수양법과 미러뉴런의 의의

제1절 유가적 수양법과 관료병의 의의

1. 유가 수양법과 선비정신

최근 국가부패지수 악화와 관련 전래적 선비정신의 필요성은 국민

74.5%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김종록, 2014 : 16). 선비(이성무 외, 2011 ; 이영춘 외, 2003) 또는 청백리는 깨끗한 공직자다. 생존자는 廉謹吏, 廉吏다. 腐敗官僚는 貪官汚吏, 貪吏, 臧吏라고 하여 ‘臧吏案’에 기록했다. 梧里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청백리였다(이영춘 외 : 12-14).

청렴은 사회윤리의식 향상과 연결해야 하며, 제도보다 사람,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또한 사전예방시스템 보강과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조규범, 2014). 청렴 등의 행위규범을 준수시키는 방안으로는 교육훈련을 통한 행위규범 당위성 인식, 국민의식수준 향상, 건전한 직업관 확립 등이 있으며, 국민도위에 역점을 둔 전인교육과 평생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행태 개선방안의 하나가 공직 사명감 고취다(오석홍, 2002 : 147). 예컨대 공익을 추구한다는 확고한 가치관과 국민에 대한 책임감, 충성심 등이다. 이것들의 토대가 청렴정신이다.

儒家的 靜坐法이 언제 유가에 수용되었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다(손병욱, 1994 : 8). 주렴계(1017-1073)의 『태극도설』에서 기원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자의 스승 이연평이 도달하고자 한 목표는 存天理 渴人欲하여 救人成聖하자는 데 있다. 정좌의 목표는 첫째, 천리를 인식하는 것이고, 둘째, 심신을 收斂하는 것이다. 默坐澄心 體認天理를 주목하면 목좌정심은 靜坐이고, 체인천리는 이 정좌의 효과다. 천리의 體認은 희로애락의 未發氣象의 體認이고 中을 구하는 것이며, 천하의 대본 내지 본체를 체증하는 것이다(손병욱 : 8). 이 정좌법을 통하여 일상사와 思考로부터 스스로를 격리시켜 초월적으로 사유와 기질과 정감이 혼란한 가운데서도 오뎅하게 드러난 순수한 자기 존재를 이룩하려는 체인법이다.

선비의 수양법(손병욱, 2012 : 53-55)인 호연지기 양성은 以直養氣, 集義所生, 積善에 따라 浩然之氣가 형성되고 이는 적절한 긴장심의 居敬의

자세에서 나온다. 선한 행동이 호연지기가 된다. 유가의 좌법은 불가나 도가와 다르고 지향심도 다르다.¹⁾ 體證의 본체가 空體가 아니라 森然한 天理라는 것이다. 유가는 사회적 實踐의지가 강하여 불교의 현실 회피적 자세를 비판한다. 禪은 결과를 만들지 않는다(우뻠디따, 2002). 그러나 붓다는 “나가는 숨의 극치에 지복이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곽재우의 『服氣要訣』은 『雲及七籤』을 인용한 기운 다스리기가 서술되어 있다(정림, 2009 : 79). 丹田에 이르는 경로와 방법, 효과를 기술했다. 牧隱 李穡(1328-1392)의 『牧隱集』 ‘浩然說’에는 호연지기에 대해 만물의 뿌리가 되는 元氣라고 보고 천지를 낳고 기른 음양의 이원성을 초월한 순수한 기운이라고 설명한다(정림 : 163-166). 栗谷은 『聖學輯要』에서 “仁義의 元神’은 사람마다 모두 똑같이 받았으나 타고 난 자질에 열리고 가려짐의 차이가 있으며, ‘眞元’의 기운은 사람마다 모두 똑같이 가지고 있으나 血氣에는 허함과 실함의 차이가 있다. ‘인위의 마음’을 잘 배양하면 가려진 것이 열려서 그 타고 난 바를 온전히 할 수 있으며, ‘진원의 기운’을 잘 배양하면 허한 것이 실해져서 그 참 생명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유가의 心學的 통제의 효과성을 두 가지로 구분하면 먼저 공부론 측면의 사물이치 접근은 格物致知였으며, 수양론 측면의 마음 다스리기는 居敬涵養論이다. 퇴계의 경우 人心道心說로 양 측면을 수행했다(정학섭, 2010 : 231-246).

1) 三峯은 불교의 종지는 바로 마음이기 때문에 心이라 하였고, 도교의 종지는 氣이기 때문에 도교를 대신하여 氣라고 하였고, 유교의 종지는 理이기 때문에 유교를 대신하여 理라고 했다. 정도전은 유교를 우위에 두고 도교와 불교는 유교의 명령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준하, 1998 : 157-160).

유가는 격물치지의 대상을 사물의 理로 파악하였으며, 마음 다스리기 즉 修己는 居敬에 두었다. 수기는 정좌, 소학, 궁리, 성의 등을 중심으로 궁구하였다. 孟子的 ‘主一無敵’이란 마음을 한곳에 집중하여 매달아 놓고 다른 곳으로 다니지 못하도록 한다는 말이다.²⁾ 퇴계는 敬이란 주일무적의 要法이라고 하고, 마음을 거울처럼 비추되 본성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2. 오리 정신의 중요성과 힐링 가능성

(1) 중요성

조선시대 역사상 梧里만큼 현장 중심의 정치, 행정을 安民을 최우선으로 공평무사하게 결정, 집행, 환류시켰던 인물은 드물었으며, 은퇴 후에도 소박하게 살다가 천수를 다하여 세상을 떠난 인물은 없었다. 그의 안민, 부동심, 청렴, 풍수배격 등 등의 삶의 자취와 흔적은 오늘날 우리 후손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 힐링 가능성과 치유 사례

淸은 無慾이며, 濁은 有慾이다. 유가적 처방과 치유로서의 “마음을 맑게 하고, 욕심을 줄이는 방법실천”을 통하여 관료병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고안될 수 있다(이종수, 2014.9.19). 탐욕다욕한 사람은 권세라든가 利緣

2) 유교나 도교, 불교의 道란 平常心을 말한다. 어떤 하나, 한곳에의 沒入, 全念 등으로 분열되지 않은 마음 상태이다. 主一無敵이란 성리학자 程頤가 주장한 것으로 敬을 통해 마음을 하나로, 마음가운데 덩으로써 外物에 끌리지 않게 됨을 말한다. 특히 物慾이 본심을 해치는 것(放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에 눈이 어두워지고 명예나 높은 자리를 동경하며 남보다 우수한 智를 내세워 高名을 세상에 떨치려고 한다. 그래서 정신은 날로 소모되어 居所로부터 멀어지며 오랫동안 外物 사이를 헤매고 있을 뿐 되돌아오지 아니한다. 형체는 단혀지고 안에서는 거부하게 되어 신은 다시는 들어갈 수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천하에 盲과 忘, 自失의 병이 생기게 된다. 무릇 정신과 기지는 靜을 保持하고 날마다 안에 충실하면 왕성해지는데 초조해하며 날마다 소모할 때에는 衰老한다(유안, 2013 : 65).

『한비자』, 『관자』, 『회남자』 등의 고전에서는 질병과 마음의 관계를 “근심하면 병이 생긴다. 병이 생기면 지혜가 사그라진다.”고 했다. 퇴계는 마음의 병을 마음속 풀리지 않는 응어리에서 왔다고 보고, 명상을 통하여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보았다.

마음의 병이란 욕심과 증오, 그리고 망상과 질투, 인색함과 자만 등의 병이다. 이런 세력이 일어나면 뿌연 구름 낀 마음이 된다. 구름 낀 마음은 이를 반영하는 신체적 현상을 만들어 낸다. 맑고 환한 안색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의 구름이 깔때 오염된 공기를 마신 사람처럼 흐리멍텅하고 우울하고 아파 보인다(우똘디따 : 208-214). 그러나 관찰대상을 꿰뚫듯 알아차리고자 매순간 힘차게 노력한다면, 자연스럽게 마음은 흠어지지 않고 그 대상에 머문다. 인간의 병은 육신의 병인 수, 풍, 열에 의한 병과 마음의 병인 三毒에 의한 병으로 구분된다(대한불교조계종, 2006 : 1장). 五慾七情이란 사람의 본능적 욕망과 정서다.

강남구는 공무원들의 업무스트레스를 “심리상담”으로 덜어주고 있다.³⁾ 한국민들은 스트레스로 연간 37조 원을 소비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

3) 석간 내일신문, 2012.9.3.

스트레스에 대한 사회적 抗 스트레스사회시스템으로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에 따른 정신건강검진과 예방, 치료구조 구축 및 탈 스트레스 산업 육성책이 요청되고 있다. 예시하면 1) 공공의 직접 관리로서 전통적 정신 치료 체제 구축, 2) 조직내 치료 시스템 구축 등이다. 기타 스트레스 혼합관리로 예술치료, 심리 치료 및 간접관리로 명상이나 요가 등을 든다.⁴⁾ 공무원교육원 내 “심리상담사”직제 신설과 파견, 순회 강연 등을 모색하거나 기타 청렴교육전담기구 설치, 청렴교육전문가 교육, 청렴 교과과정 개발 필요성이 제기(신기원 외 : 379)되는 所以이다.

3. 관료병의 의의

(1) 의의

수뢰 혐의 등으로 체포된 고위 관료들이 갑자기 질병에 걸리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일부는 병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한다. 피병으로 보이는 이 현상에 대해 중국의 건강교육 전문가인 홍자오광 교수는 해답을 내놓았다. 홍 교수는 광저우에서 열린 한 경연회에서 “질병은 마음에서 오는 것으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부패 관료들은 탐욕스러운 욕망을 가지고 있고 적발될 것을 우려하는 마음도 있어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모르고, 편하게 발을 뻗고 잘 수도 없어 신체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부패 관료 16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들려줬다. 그들의 평균 연령은 41세였으며, 10년 후 15명이 질병에 걸렸고 그 중에는 암에 걸린 사람도 있으며 6명은 사망했다. 브라질의

4) 서울경제, 2012.8.9.

한 연구진은 538명의 부패 관료와 동일한 숫자의 청렴한 관료를 비교 조사했다. 10년간의 연구 끝에 밝혀진 사실은 부패관료의 60%는 뇌출혈, 암, 심근 경색 등의 질환에 걸렸지만 청렴한 관료들은 발병율이 16%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기분이 우울하면 항암기능이 20% 감퇴한다. 따라서 무병장수하려면 좋은 사람이 되고 부정부패와 횡령을 하지 말라고 충고한다(대기원시보, 2009.2.12.).

관료와 관료제는 행정집행 주체와 그의 제도적 체제이며, 관료주의나 관료병리는 관료제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측면의 행정현상이다(박동서, 2002 ; 백완기, 1985). 하나의 사례로 관료들의 불친절이나 아부, 부정과 부패, 일탈, 관료 범죄 등을 들 수 있다(차재호, 1974 ; 이종수, 2014.6 : 3).

부정이나 부패 등 관료개인의 범죄는 사회합의의 일탈이며, 관료병리의 한 요소인 범죄는 관료질병이다(Caiden, 1991). 관료병은 관료들의 불안, 근심 등으로 평안함이 결여된 상태로 관료병은 정신병이다(이병량, 2014). 이처럼 官僚病이란 공무원의 행동규범을 위반한 비윤리적 행태를 지칭한다(오석홍, 2002 : 127).⁵⁾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하면 관료병이란 공직 내 관료개인의 직무, 직책과 관련된 의식적이고, 부당한 사익추구 결과 나타나는 비윤리적 행태다. 곧, 관료병이란 공직수행에 있어서 사적인 이익의 추구에 따라 행정에 미치는 악영향으로 능률저하나 공익을 침해하는 범죄로서(지영환, 2010 : 83), 개인적 측면에서는 정신적, 심리적 측면의 과도한 출세욕과 재물욕의 결과로 나타나는 바이러스성 疾患(Caiden, 2001)이다. 본 고에서는 관료병(public service illness)이란 직무와 관련하여 공권력과 권한을 직,간

5) 관료병의 원인과 치유방안의 자세한 논의는 이종수(2014.3, 4, 6, 7) 참조.

접적으로 행사하여 특혜를 주거나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라는 관점에서 “관료병이란 공직규범인 청렴의무 위반으로 의도적인 사익추구 결과 나타나는 탐욕적 범죄이며, 권력남용의 결과로서 제도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관료개인의 정신적인 탐욕 증후군”으로 정의한다(이종수, 2014.3 ; 이종수, 2014.6).

(2) 관료병의 스토리텔링 힐링

유가적 청렴 수양법 스토리텔링 힐링이란 유가적 수양관을 근거로 이를 구체적인 탐욕심 치유 모델에 응용하여 왜 유가적 수양법이 관료병 치유에 도움이 되고, 무엇을, 어떻게를 치유대안으로 개발하여 적용시킬 것인가를 중심으로 한 접근이다.

관료병의 제도적 측면의 실패 또는 한계⁶⁾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하나의 접근이 문화적, 심리적, 감성적 측면의 접근인 스토리텔링 접근이다. 이야기 치유 접근효과는 관료병에 대한 기존의 대처방안이 미흡하고 효과성이 떨어질 뿐더러 병리의 영속성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대처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童蒙訓에 이르기를 “벼슬자리에 있으면서 마땅히 지켜야 될 법도가 세 가지 시향이 있으니 청렴함과 신중함과 근면함ियो. 이 세 가지를 알게 되면 몸가짐에 대한 所以도 알게 될 것이다(유덕선 역해 : 207)고 하고, “마음을 맑게 가지고 일을 잘 살피는 것으로 근본을 삼는다.”고 하였다. 물이 맑고 깨끗하면 우리는 淸이라는 글자를 떠올린다. 그를 활용해 만든 단어의 하나가 淸廉이다. 청렴이라는 단어의 중요성은 달리 부연할

6) 관료병과 행정윤리(공직윤리)의 한계는 이종수(2014.9) 참조

필요가 없다. 높은 공직에 올라 있거나 올랐던 사람이 곧고 바름을 유지함이 廉, 제 직위의 후광을 업고서 남의 재물을 엿보거나 받는다면 貪이다. 清廉에 이어 그런 관리를 뜻하는 廉官과 廉吏, 청렴하면서도 뚜렷이 살피는 清廉明察의 廉明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왔다. 명나라 조정에서 “상관에게 바칠 뇌물은 없고 두 소매에는 깨끗한 바람 뿐”이라고 했던 于謙이라는 인물의 兩袖清風이라는 성어가 다 그런 청렴의 관리를 뜻하는 말들이다.⁷⁾ 청렴결백은 관리의 인품 중 가장 우선적인 덕목이었다. 관원들의 修己의 덕목은 清廉, 勤儉, 厚德, 仁義 등이며, 治人の 덕목은 善政, 忠誠, 遵法이다. 청렴이나 근검 등은 정신적, 심리적 상태이며, 선정과 준법 등은 실적에 해당한다.

貪慾이 인간을 죽이고, 절제가 살린다. 따라서 탐욕을 줄이고 절제해야 한다. 황금은 관리의 마음을 검게 한다(黃金黑吏心). 손사막의 양생비결(자오양, 2009 : 108)은 오욕칠정을 버리라는 것이며, 홀사혜의 양생비결(자오양 : 189-240)은 음식을 소량 섭취하고, 말을 적게 하며, 탐진치를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고정방의 양생비결 또한 “마음을 맑게 하고 욕심을 줄이는 것”이다. 모든 魂魄은 텅 빈 곳에 모인다. 빈 것은 마음이 닦아진(心齋) 것이다(『莊子』, 1979 : 102). 자나 깨나 ‘거경궁리’ 자세였다. 단전을 勿亡勿助한다. 고정방은 심리질병을 치료할 때 환자 개인들을 직접 대면하여 유학적 접근으로 치유했다. 유학을 응용하여 그 이치를 들려주면서(storytelling) 환자의 마음이 풀리지게 하였다. 그는 만년에 폐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사직하고 고향으로 낙향하여 생을 보냈다(자오양 : 240).

7) “청렴이란 福없는 자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도 한다.

스토리텔링은 스토리가 ‘식재료’라면, 텔링은 ‘요리법’이다. 같은 식재료라도 누가 요리 하느냐에 따라 음식 맛은 확 달라진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작가의 영역을 벗어 난 마케터 역할이 중요하다. 스토리텔링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본래 그 문화원형이 지니고 있는 스토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그 지역에 대한 현장 연구가 필수적이다. 스토리텔링 (storytelling)이란 상대방(관객, 고객, 민원인)에게 이야기하기이다. 사르트르는 “우리는 모두 우리 이야기와 타인들의 이야기에 둘러 싸여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이야기를 통해 이해하며, 마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삶을 살아간다”고 했다. 인간들은 이야기를 통해 상처받기도 하지만 치유받기도 한다. “치료적 이야기는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 안에 있고, 어디에서든 찾을 수 있다.” 이야기는 삶에서 치료제 역할을 한다(Clark, 2004 : 12-13). 조직이나 개인은 외부와 의존관계에 있으며 외부 세계는 우리의 내면과 충돌을 일으키기 쉽다. 이야기는 치료제로서 이런 충돌을 조정한다.

이야기는 치료하는 힘이 있다. ‘이야기 치료법’이라는 평범한 말 한마디에는 정신분석의 모든 비밀이 숨어 있다. 프로이트(S.Frued)의 정신분석은 ‘말’과 함께 시작되었다. 프로이트는 “히스테리 연구”에서 카타르시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환자가 히스테리의 원인이 되는 사건을 완전하게 기억해 내고 동시에 그 기억에 얽혀 있는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데 성공하면, 그리고 환자가 그 사건에 대하여 가능한 한 자세히 진술하고 감정들을 말로 표현하게 되면, 개개의 히스테리 증상은 곧 소멸되고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언어의 치유능력으로 불치의 병도 완치자의 이야기를 듣고 노력하여 회복한 사례 등을 들 수 있다. 예컨대 우리의 내면에 억압되어 있는 욕망, 이를 수 없는 욕망의 문

제들에 대하여 스토리텔링 속 인물을 통해 경험하고, 공감하고 해소할 수 있다. 또 그러한 경험과 공감을 통해 어떤 만족감과 위안, 용기, 깨달음을 얻고 치유될 수 있다.

제2절 미리 뉴런적 접근

1. 미리 뉴런의 의의와 체제, 방법

(1) 미리뉴런의 의의

미리뉴런(mirror neuron) 발견의 의의는 가장 원초적 사회적 행동인 모방을 설명할 수 있는 생물학적 장치의 발견이란 점이다(한일조, 2010 : 522 ; 한일조, 2012 ; Gallese, et al, 1996 ; Rizzolatti, et al, 1996). 미리 뉴런의 共感(empathy)이란 ‘타자가 느끼는 것과 꼭 같은 정서를 느끼는 것’으로 타자의 행위의 의미이해와 타자 복리를 위한 利他性의 조장이 필수적이다(한일조, 2010 : 529). 미리뉴런의 존재는 의지가 있기 전에 보면서 따라 하게 되는 학습기제의 존재를 밝혀 준다(한일조, 2010 : 541). 감정적 공감능력이란 타인의 감정을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대리적으로 느끼면서 이해하는 능력이다(석봉래, 2014.12 : 32).

특히 정서공유 관련 현상의 설명에서 나타난 ‘지각과 행동의 직접적 연결’의 사실(Preston & de Waal, 2002)은 관찰에 의한 간접적 경험의 효과가 직접적 체험에 못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비록 공감현상이 강조하는 정서의 공유만이 아니라 사회 및 도덕교육의 여러 목표에 걸쳐서 ‘보는 것’에 의한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한일조, 2012 : 278).

(2) 주요 방법

도덕교육은 크게 통제와 조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도덕적 습관형성의 부분과 하여야 할 행위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이나 그 성숙을 조장하는 도덕적 판단 훈련의 부분으로 이루어진다(한일조, 2010 : 536). 지금까지는 학교를 중심으로 도덕행위 교육이 이루어져 왔으나 지금부터는 취학전, 사회교육에도 눈을 돌릴 때다. 공감에 대한 신경과학자들의 설명은 정서 공유, 관점 취하기 및 친사회적 행동으로 구분한다(한일조, 2012 : 268-277). 먼저 신경과학자들은 우선 공감이 관찰자와 대상인물 사이의 정서적, 유사성 관계를 연계시켜 주고 있다.

둘째, 그들은 우리가 타인의 주관적 관점들은 지향적으로 채택하는 것과의 관계를 연결시키고 있다.

셋째,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 측면에서 모방을 통하여 친사회적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따라서 梧里의 청렴 행적에 대한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미러뉴런 접근방식의 몇 가지 함의는 모방, 언어학습, 감정이입, 공감, 연민과 카타르시스, 정서의 전염, 친사회성 측면이다(한일조, 2012 : 278-280). 이러한 모방행동, 관찰유도, 모방학습, 보면서 따라하기를 체험대상으로 개발하여 공감과 내면화로 유도하고, 청렴체험교육을 통한 모방치유와 재교육을 통한 청렴마인드 제고 등을 들 수 있다.

2. 치유 효과

미러뉴런을 기반으로 한 치유효과적 측면을 Heartmath 연구소, 마음 이론, 유교적 수양관 순으로 기술한다. 첫째, Heartmath 연구소의 닥 켈

드리와 하워드 마틴은 『Heartmath Solution』에서 심장의 기능과 건강과의 관계와 관련 심장은 태아의 두뇌가 생기기 이전부터 뛰다고 하고, 두뇌보다 심장이 정서기능과 사고기능, 운동, 언어 영역까지 관장하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서광, 2014 : 6-9). 심장의 기능은 신경의 전기적 흐름, 호르몬과 전달물질, 심장의 파동을 통해서 기능한다. 三毒(貪瞋癡)에 오염되지 않고 약간의 알아차림을 통하여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 의도 등의 진정성을 파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심장에는 뇌와 같은 뉴런이 있고, 지능이 있다. 심장지능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정서로 바꾼다. 자신의 내면(心臟)에 좀 더 귀를 기울이면 정서, 감정 조절은 물론 현상을 왜곡하거나 방어하지 않고, 보다 객관적 사실을 경험할 수 있다.

둘째, 마음이론(theory of mind)과 관련 관점획득(perspective-taking)이 주목된다(오인경 외(2009 : 3). 관점획득 개념은 양전자 단층촬영기법(PET)을 이용, 자기나 타인의 共感 등에 대한 유사한 결과가 실제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이다(오인경 외 : 4-6). 거울이론과 마음이론을 공학적으로 구현가능한 의도대응 모델 연구 결과 타인의 의도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과정을 뇌신경과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반응적이고 신중한 대응행동이 생성됨을 실험을 통하여 검증했다(채유정, 조성배, 2014 : 671-673). 즉 타인의 감정과 사고에 상상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내재한다(한일조, 2012 : 273). “달라이 라마는 인지과학자들과 생명과 마음연구모임을 통해서 명상을 통한 뇌의 가소성을 입증하는 실험을 했다.”

셋째, 유교의 수양론 관련 유교의 수양론의 뇌과학적 설명(코리안 스피릿, 2011.12.4) 측면으로 과학과 인문학적 접근이다. “인간의 뇌는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변화될 수 있는 가소성(plasticity)에 주목하며, 이것은

자기습관이나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인간이 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불교와 유교가 추구했던 수양법이 뇌과학의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 뇌를 훈련하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집착은 좌,우 뇌의 균형을 파괴한다. 안정된 애착관계가 좌, 우 뇌를 고르게 발달시킨다(헬스조선, 2014.10.17). ‘내 몸(感情)은 내 것이지 내가 아니다’를 自覺하면 문제와 자신을 동일시 하지 않게 된다. 명상이나 참선이 스트레스 해소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법보신문, 2014.6.2). 예컨대 유가의 心法, 存心 등이다. “마음을 마음으로써 통제하고 조절하는 방법 및 그로써 스스로 이상적 인격체를 창조하는 방법을 개발해 온 유교의 심학은 정상인의 삶에 대한 유용성이 지속적으로 인정될 것이다.”

학계와 의학계는 그 동안 참선이나 명상과 뇌, 건강간의 연관성(법보신문, 2014.6.2.)을 연구해 온 결과 간화선 수행으로 우울증 치료 효과가 입증됐다. 뇌혈류 증가, 산소공급 증대, 노화억제 호르몬이 분비 된다(법보신문, 2014.6.2.). 옥스퍼드 대 정신의학부 마크 윌리엄즈 교수 등은 참선치유 사례를 소개했다. “8주 코스의 취지는 ‘환자의 문제를 교정하거나 해결(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매사를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 과정이다. 식이요법과 운동도 함께 실시한다. 참선은 면역체계를 강화시킨다.”고 했다.

동양의 심신의학은 심리적, 신체적 건강을 다스리는 데 기공이나 명상, 요가 등을 꾸준히 발전시키며 건강의 수단으로 삼아 왔다(황경식, 2009 : 26). 특히 명상수련은 심장박동, 혈압완화 등을 도움으로써 질병 발생율을 감소시키고 건강을 증진시킨다(황경식 : 27 ; Seedhouse, 1990).

제3절 선행연구와 분석의 틀

1. 선행연구 분석

첫째, 관료제의 역기능 측면은 차재호(1974)의 공무원 심리분석, 안병만(2007)의 구조와 행태분석, 이병량(2014)의 관료 나르시시즘 연구 등을, 이종수의 관료병(2012, 2013, 2014) 등을 들 수 있다. 주로 관료들의 부정적 측면과 그 개선을 밝히고자 한다. 이병량(2014)의 관료 나르시시즘 연구도 유사하다.

둘째, 유가적 수양법 측면이다. 이연도(2010)의 퇴계의 수양법 분석, 손병욱(1994)의 남명의 정좌, 손병욱(2012)의 선비의 수양과 삶, 이성무 외(2011)의 선비와 공직자 삶, 함규진 외(2013)의 오리의 삶과 수양관, 이연도(2010)의 퇴계의 유가적 힐링 등은 유가적 수양을 통한 마음다스리기 방안 들이다. 관료병 치유측면에서는 조남욱(2004)의 조선시대 부패방지대책의 현대적 수용과 구미숙(2013)의 莊子 힐링, 장승희(2012)의 남명의 義치유적 접근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이종수(2014. 3, 4, 6, 7, 9, 12; 2015.1)의 관료병 치유는 불가, 유가, 도가적 측면에서 관료병의 예방과 치유방안을 제안했다.

셋째, 미러 뉴런 측면에서 한일조(2010, 2012, 2014)는 정서공유, 관점취하기, 친사회적 행동으로 설명한다. Gallese, et al(1996), Rizzolatti, et al(1996), Seedhouse(1990), 황경식(2009) 등은 신경정신의학 측면을, 오인경 외(2009)의 “자신 혹은 타인의 정서적 상황에 대한 뇌 활성도의 차이 : 관점획득에 관한 신경영상학적 연구”와 Hearthmath 연구소의 심장지능(서광, 2014)기능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표 2>에 정리한다.

<표 2> 선행연구 분석

구 분	선행연구 분석과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유가 수양법 과 관료병 치유	손병욱(1994), 남명의 정좌법	질적 접근	경의 사상의 기저로서의 정좌수행 분석
	손병욱(2012), 선비의 수양과 삶	"	선비의 수양관의 현대적 적용
	이성무 외(2011), 선비와 공직자의 삶	"	유학과 선비, 공직자의 자세
	서광(2014), 머리와 가슴의 조화	"	심장과 뇌의 관계분석
	함규진 외(2013), 오리의 수양관	"	오리의 생애 분석
	조남욱(2004), 조선시대 부패방지대책의 현대적 수용	"	조선시대 부패방지대책 사례분석과 철학적 관점의 현대적 수용
	진종순(2008), 퇴계의 관료 교육론	"	퇴계의 관료교육방법론
	이종수(2014.3), 관료병의 유가 스토리텔링 힐링	"	유가 힐링
	이종수(2014.4), 관료병의 명상 스토리텔링 힐링	"	불가 힐링
	이종수(2014.6), 관료병의 도가 스토리텔링 힐링	"	도가 힐링
	이종수(2014.7), 영의정 이원익의 도학적 행정사상 분석	"	오리의 유가적 실천행정
	이연도(2010), 퇴계의 유가적 힐링	"	퇴계 유가 힐링
	장승희(2012), 남명의 義치유적 접근	"	남명의 유가적 義치유
	구미숙(2013), 장자 힐링	"	장자의 정신 치유
	한일조(2010), 미러뉴런의 도덕적 함의	신경정신의학	미덕교육과 미러뉴런
한일조(2012), 미러뉴런과 공감	"	공감의 도덕적 함의	
본 연구	관료병리 치유를 위한 오리 스토리텔링 치유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함.	질적 접근, 사례분석	관료병리의 오리 행정행태 분석을 통한 오리 부동심 스토리텔링 힐링 과제 제안

2. 분석의 틀

본고는 조선시대 선비들의 정신적 지향처와 심신수양법에서 清廉정신의 단초를 찾고, 정신적 측면의 공직부패 방지방안과 제도적인 힐링 프로그램을 유가적 수양관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유학자의 수양관과 청렴관을 통한 청렴유지와 그 방법, 현대적인 청렴성 제고를 위한 실천방안과 정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료병 방지와 예방을 위한 공직자 정신의 윤리적 대안과 현장적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공감에 대한 신경과학자들의 설명은 정서 공유, 관점 취하기 및 친사회적 행동으로 구분한다(한일조, 2012 : 268-277). 梧里의 행적에 대한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미러뉴런 접근방식의 몇 가지 함의는 모방, 관찰 유도, 모방학습, 공유된 다양체, 보면서 따라하기 등이 그것들이다. 본고는 오리 청렴심의 ‘미러뉴런(Mirror Neuron)적 체험요인’으로 공감, 내면화 유도, 청렴체험교육을 통한 모방치유와 재교육을 통한 청렴마인드 제고 방안을 제안한다. 오리의 정신적 측면의 선비정신, 청렴, 부동심체험과 물질적 측면의 신체, 걷기, 음식 체험 등으로 구분하여 접근한다.

Ⅲ. 광명시 오리청렴교육관 사례 분석

1. ‘오리이원의 청렴 인성교육관’ 설치계획

2014년 11월 현재 광명시 문화관광과 ‘계획안’ 등을 참조하여 이론적 토대에 기초한 실무적 차원의 성공요인과 발전적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추진방침은 오리 행적에 바탕한 청렴, 인성 교육을 추진코자 하였다. 인근 유적지와 서원 등을 교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광명시 내부자료, 2014.8). 사업분야로는 공직자 청렴교육과 전통 인성교육을 목표로 하며, 교육 프로그램은 상황극, 전통음악, 다도 체험, 유적지 답사 및 청백리 강연 등이다.

2. 2014년 현재 현안과제

(1) 과제

광명시 오리문화의 현황을 중심으로 발전과제를 찾아보면 도시마케팅⁸⁾ 측면의 미비점 보완이 요청된다. 서울과 인천, 수원시, 장성군 등에 가려져 있다. 그 대안으로 오리문화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특성화, 지역관광프로그램과 연계 구조를 통한 광명시 梧里 스토리텔링 마케팅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도시, 인물마케팅의 일환으로 ‘오리 스토리텔링 마케팅’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겠다. 예시하면 五短之相 梧里 스토리텔링 등의 발굴이다. 수많은 이야기 속에 남은 이원익을 재조명하고 장소와 접맥시키는 것이다. 키작은 명재상 40년 행정과 청렴 이야기 등 등이다(이정철 : 223-224).

(2) 자원과 체험코스

첫째, 정신적 측면의 청렴스토리텔링 활용이다(이중수, 2014.3a: 108).

8) 지방도시를 상품화하여 이를 판매하기 위한 장소마케팅(place marketing)은 이미지, 매력물, 간접시설, 사람 마케팅 등이다.

위에서 살펴본 오리의 청렴스토리를 중심으로 한 정신적 힐링(교육 중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한다. 물욕통제 측면으로 禮義廉恥 체험을 통한 물욕 통제의 구조화다(조남욱, 2004 : 19-26). 탐욕과 물욕의 제도적 정신적 통제구조로서 힐링과 수행제도 프로그램화 측면이다. 禮란 절도, 義란 스스로 나서지 않음을, 廉이란 감싸지 않음을, 恥란 굽은 것을 따르지 않음이다. 見利思義의 내적 감시체계의 자각적 발동이다. 선비의 하루 일정을 프로그램화 한다(새벽, 아침, 오전, 오후, 저녁, 밤, 취침)(이성무, 2011, 손병욱, 2012).

둘째, 물질적 측면의 음식과 오리 거리 조성, 오리뮤지컬, 가학산 동굴문화박람회 등을 예시할 수 있다(활동, 명상, 걷기 등). ‘오리대감 청백리 밥상’ 등 건강식단 개발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 등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원의 종가의 음식에서 명절과 제사음식 등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여 표준화 한 ‘청렴 힐링 음식’의 개발이다. 경주에는 ‘이사금 밥상’이, 통영에는 ‘이순신밥상’이, 장성에는 ‘청백리밥상’이 있다.

프로그램에 ‘오리청렴밥상(메, 탕, 적, 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息治的 측면이다. 인류가 건강한 삶을 위해 필요한 생태적 조건은 음식, 물, 공기, 빛 등이다. 음식은 건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건강은 육체와 정신, 그리고 영혼이 하나의 유기적 통합체로 기능할 때 유지되며, 음식은 이들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음식은 신체 내의 사악한 기운을 없애주며 오장육부를 편안하고 순조롭게 해주며 사람의 정신과 마음을 기쁘게 만든다. 여기에서 음식으로 몸을 다스리는 食治개념이 나온다.

오리 청백리 밥상 “청렴문화 체험”(연합뉴스, 2012.10.10), 청백리의 삶, 문화, 가솔, 재산의 사례에 관한 스토리텔링을 유형화하여 활용할 수

있다. 고기와 생선이 없는 채식위주의 식단이다. 孫思邈(581-682)은 “음식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면 좋은 의사다” 질병의 근원을 분명히 파악하여 그것이 몸의 어떤 부위에 해로움을 주었는지 알아내야 한다고 했다.

3. 미러뉴런적 오리 청렴체험 대상과 내용

(1) Who : 梧里

오리는 조선시대 역대 고위관료 중 『大學』의 8조목을 이룬 이상적 인간상에 가까운 인물이었다. 오리의 덕은 한마디로 지칭할 수 없으나 가장 큰 것은 道를 지키는 것이 淸廉하였다. 은퇴 후는 종일 돛자리 짜기로 소일했다. 설월리(서월리)는 달빛 아래 호미로 김을 매던 곳이다. 타지역(기관)과의 차별성 측면에서 선비의 수양법 체험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가마니 짜기, 돛자리 짜기 등의 프로그램을 오리청렴교육관에 신설하여 체험케 할 것이다. 단 하루라도 梧里 정신을 체험케 하여 관료병을 줄이고 부동심으로 공직에 봉사할 수 있는 정신가치를 전수케 할 일이다(이중수, 세계일보, 2014.9.19).

이원익은 특정 학파에 속하지는 않으나 학문적 지향성이 퇴계학파에 가까웠다. 그러나 남명학 인사들과도 교유가 깊었다. 남명의 경우 義사상과 절의를 강조한 점 등이 오리의 처세관과 교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특정 스승의 문하에서 수학한 경력(師承關係)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리의 여러 가지 조화된 성품이 그의 행정관료 행적 등과 정치 행정관, 재물관, 대민관, 수양심 측면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이중수, 2014.7 : 442).

(2) What : 부동심 스토리텔링

오리의 개인적 심신 수양관 측면에서의 수양의 핵심은 不動心과 完平이다(함규진, 이병서, 2013). 完平心은 모자람이 없고, 치우침이 없는 마음이다. 그는 오랜 수양을 통해 마음을 잘 닦아 거울처럼 모자라거나 이지러진 부분이 없도록 다듬었다(함규진 외 : 423-424). “不動心の 경계에 대한 仁의 실현에 대한 희구”라는 표현처럼 그는 만년에 허목(許穆)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람의 마음은 마치 물건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네. 기미를 잘 살펴 취사를 잘 결정할 수 있다면 마음이 밝은 것이네. 용맹은 밝은 데서 나오니, 밝으면 의혹이 없고, 의혹이 없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네.” 허목은 “이것이 공의 평생의 힘을 얻은 방책이다”라고 평했다. 이런 마음의 완전경지가 不動心이다. 오리의 ‘16자 훈계’에서 분명하게 제시된다(함규진 외 : 424). 완전한 마음이 목표다. 公明正大해야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이종수, 2014.6,7,9).

오리는 장자 이의전에게 “청렴하면 공변(公平無私)되고, 공변되면 밝아진다. 정치를 하는 데는 백성에게 어질게 하고 물건을 사랑하는 것으로 마음을 삼아야 할 것이니 호령이 공평하고 상벌이 사사롭지 않으면 백성이 따를 것이요, 인심이 흩어지면 만사가 다 그릇된다”고 했다(이성무 : 29).

(3) How : 체험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이란 이야기를 들려주는 활동이다(이종수, 2009.11 : 232). 즉 “스토리텔링이란 이야기하기다. 기존의 이야기나 창작내용을 수용자의 욕구충족을 위해 효과적으로 가공하여 이야기로 풀어 타인들에게 표현, 전달하는 행위이다.”소통과 감성메시지를 중시한다.

따라서 지역적 스토리에 기반을 둔 梧里 청렴체험 문화상품 개발과 확대, 자원 해설기능을 강화해야 한다(오동욱, 2011 ; 박석희 외, 2013). 예시하면 모방과 공감, 감정이입적 청렴체험을 통한 공감과 내면화에 의한 모방치유와 재교육 측면의 청렴 스토리텔링이다.

4. 梧里 不動心 共感體驗 스토리텔링

(1) 행정관(스토리텔링)

오리는 조선시대 3대 국왕을 모시고, 40년 동안 6번의 영의정, 4번의 도체찰사를 역임했지만 청렴결백해 대단히 곤궁하게 살았다(이성무, 2012 : 30). 이원익의 일생을 權愈는 충과 信으로 요약했다. 李俊은 直과 忠이라고도 했다(이성무, 2012 : 29). 德을 추구하는 유가적 자기 수양의 핵심은 내면의 수양에서 외면의 발전으로 나아간다. ‘자기 수양’의 덕목은 내부와 외부의 두 부분이다. 내적인 과정은 다시 네 가지로 분류되는데, 이는 이른 바 ‘正心’, ‘誠意’, ‘致知’ 그리고 ‘格物’이며, 그리고 외적인 부분은 ‘修身’, ‘齊家’, ‘治國’ 그리고 ‘平天下’로 나뉘게 된다. 이를 토대로 오리 스토리텔링의 힐링 프로그램을 정신적, 신체적 측면에서 접근한다. 행정관의 구체화는 백성을 편안케 하는 安民정책으로 현장에 실현된다(이종수, 2014.8).

오리는 인조에게 “풍속교정을 安民중심으로” 한 대안을 제시했다(이영춘 외 : 239 ; 프린트물 ; 함규진 외, 2013). 오리는 조선시대 역대 고위 관료 중 ‘대학’의 8조목을 이룬 이상적 인간상에 가까운 인물이었다.

(2) 오리의 청렴관(스토리텔링)

오리 정승이 세상을 떠났을 때 史官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이원익은 간명하고 정직한 위인이고 몸가짐이 淸苦하였다. 비바람도 가리지 못하는 몇 칸의 초가집에 살면서 떨어진 것에 베옷을 입고 쓸쓸히 혼자 지냈으므로 사람들은 그가 재상인 줄 알지도 못했다"(이종수, 2014. 3,4, 6,7,8).

첫째, 청백리 표상 이유다. 오리의 경우 청백리안에는 淸白, 勤儉, 敬孝로 기록됐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고관대작이었으나 청빈했다(이영춘 : 4). 1623년(인조 9년) 1월 10일 인조가 승지 강홍중을 보내어 이원익을 문안한 뒤 “그가 사는 집이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강홍중은 “두 칸 초가가 겨우 무릎을 들일 수 있는데 낮고 좁아서 모양을 이루지 못하며 무너지고 허술하여 비바람을 가리지 못합니다”라고 아뢰었다. 이 말을 들은 임금은 “재상이 된 지 40년인데 두어 칸 초가는 비바람을 가리지 못하니, 청렴하고 결백하며 가난에 만족하는 것은 고금에 없는 것이다. 내가 평생에 존경하고 사모하는 것은 그 공로와 덕행뿐이 아니다. 李公의 청렴하고 간결함은 모든 관료가 스승삼아 본받을 바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5칸짜리 집 한 채를 이원익에게 하사했다. 하지만 이원익은 “신을 위해 집을 지으니, 이것도 백성의 원망을 받는 한 가지”라며 수차례에 걸쳐 받기를 사양했다고 한다.

재물욕심이 없던 그는 스스로 짚신을 꼬아서 신고 지붕으로 쓸 만큼 청렴하였다. 오리에 대한 평가는 청렴하였으며 사심이 없었다고 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원익과 유성룡을 두고 말했다. “이원익은 속일 수는 있지만 속이지 못하겠고, 유성룡은 속이고 싶어도 속일 수가 없다”(嶺南人稱

李完平柳西厓曰 完平可欺而不刃欺 西厓欲欺而不可欺)고 했다. 남학명(南鶴鳴, 1547-1634)의 『晦隱集』에 나오는 말이다.

(3) 수양관(스토리텔링)

유성룡은 선조에게 “그 사람은 愛民을 위주로 한 공직자로” 천거한다. 허목은 “상국의 명성과 공로가 온 세상에 퍼졌다. 그 마음을 찾아보면 바로 한결같음이다(不動心). 한결같기 때문에 밝으며, 밝기 때문에 신념을 갖게 되고, 신념을 갖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오리의 自評측면이다. “나는 평생 이익을 보면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지 생각했다(見利思義). 또한 일을 할 때에는 그것이 어렵다고 마다하지 않았으며, 처신할 때는 구차하게 굴면서까지 남에게 받아 들여지고자 하지 않았다. 이런 태도에 잘못이 없지 않으니, 줄이려고 하였으나 잘되지 않았다”(함규진 외, 2013).

IV. 梧里의 不動心과 청렴 스토리텔링

제1절 예방과 치유의 방향

1. 기존 프로그램

첫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연수원 벤치마킹 사항이다. 2014년 현재 청렴연수원(www.acrc.go.kr)은 과학적인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부패 방지, 예방을 지향한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 민간대상 청렴교육 확대, 공

직사회 청렴문화 정착, 사회 각급 기관 청렴 문화 확산에 주력한다. 주요 프로그램 사례로는 고위직 과정, 중간관리자 과정, 신규자 과정, 청렴강사 양성 과정, 청렴강사 인증과정, 반부패 감시부서장 과정, 반부패 정책전문가 과정, 특별교육과정 등을 운영한다.

둘째, 전남 장성군 청렴문화센터 벤치마킹 사례이다. 청렴문화센터 (<http://icc.jangseong.go.kr>)의 청렴문화 목표는 청렴교육 참여 대상 확대, 지역 브랜드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이며, 체험 교육 내용 : 청렴 강의(동영상과 공직관 특강), 현장체험(묘지, 사당 등), 심신수련(등산과 삼림욕 등), 어울 마당(국악공연, 화합의 시간) 등을 운영한다. 운영 방법은 자치단체의 주관하에 위탁업체 선정 운영하며, 청렴문화센터 조직은 청렴문화 담당, 청렴교육담당, 테마파크담당 부서로 구분된다. 장성군의 경우 관내식당 운영 7억 6천, 숙박 업체 5억 1천, 특산물 판매 1억원 등과 교재 판매로 3천만 원 등의 수익을 올려 지역경제에 기여한다(연합뉴스, 2014.4.2).

셋째, 다산의 교육훈련관은 실무중심, 인성강조, 참여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진중순, 2008 : 73-80).

2. 행위규범 준수

國民을 포함한 정부 官僚들의 행위규범을 준수시키는 방안으로는 교육훈련을 통한 행위규범 당위성 인식 등으로 예컨대 공익을 추구한다는 확고한 가치관과 국민에 대한 책임감, 충성심 등의 내면화이다.

유교의 수양법은 學과 思 두가지로 학이란 경서 읽기 등이며, 사란 內省에 의해 자신의 心性情을 점검하는 자기 반성의 방도다. 이러한 道를 닦는 자세는 경공부가 기본이다. 의무와 덕이 相補하는 통합윤리 사례로

오리가 적합하다고 평가된다. 조선시대 관료체제를 유지하고 타락을 방지했던 뿌리에는 유교적 수양의 원리와 윤리규범에 대한 의식이 배어 있었고, 또 강요되었다(이영춘 외 : 17). 『大學』의 正心조는 수신(이영춘 외 : 23)로 居敬窮理 등의 원리를 제시했다(이중수, 2014.7.9).

교육 프로그램으로 반부패교육의 제도화 측면은 국민의 자각과 부패방지 교육, 사회환경 개선(오석홍, 2013 : 575-577) 등이다. 환언하면 반부패교육의 제도화와 부패예방교육(이진호, 2011 : 92)과 예방관리(이진호 : 401), 청렴과 반부패교육 제도화 등이 요청된다(노순규, 2011).

체험 프로그램 개발측면으로는 공무원 교육이나 윤리교육만으로는 부패방지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체험치유(장성군 청렴프로그램) 등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예컨대 유가적 격물치지론이나 명상(참선) 치유 프로그램(단기, 중기 처방) 등을 필수 교육프로그램에 포함시킨다(이중수, 2014.3). 기타 봉사치유 등의 프로그램을 통한 체험 교육 제도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공직자와 초·중·고 학생들의 청렴체험 현장화 및 공직자 체험 현장화, 초, 중등 교과서에 청렴이야기와 선비이야기 등을 수록하게 접근하고, 이를 체험 명소화 한다. 예컨대 남명의 義치유 프로그램, 퇴계의 仁치유 프로그램, 오리의 不動心 프로그램 등을 예시할 수 있다. 공직자 청렴교육 프로그램에 준하되 초중고 학생과 공직자별 유형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배치해야 할 것이다.

제2절 오리 스토리텔링 힐링 프로그램

1.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먼저 교육일정(안)은 1~3일 정도가 적당하다 할 것이다. 아침 명상, 조찬, 오전학습(청렴 강의, 동영상 등), 오찬, 유적 견학(해설사 대동), 오후 동아리 활동(이성무 외, 2011 ; 손병욱, 2012 : 48-49, 93), 만찬, 저녁 명상, 취침 등의 체험 프로그램(안)을 상정할 수 있다. 주로 아침, 오전, 오후, 저녁 시간의 활용 순이다.

2. 사례

(1) 왕백(王栢)

온종일 居敬의 마음을 유지함을 담은 글이 『夙興夜寐箴』이다.⁹⁾ 왕백은 주자의 제자뻘 된다(이성무 외 : 221). 왕백은 오전 학문 정진, 오후 지력 배양 활동과 동아리 활동 등과 저녁 명상 등으로 매진했다(손병욱, 2012 : 93).

(2) 퇴계의 하루

퇴계(退溪)는 새벽 눈뜨면 어제를 되돌아보고, 오늘 할 일을 정리한다 → 일어나서 방을 정돈한 뒤 세수하고 의관을 갖춘다. 그리고 정좌(활인 심방 참조) 수련을 한다 → 독서공리하고 제자들과 주고받은 내용이 맞는지 점검한다 → 일이 끝나면 정좌한다 → 툼툼이 산보와 휴식을 한다

9) '숙흥야매잠'은 아침 일찍 기상하고 저녁 늦게 취침함을 이룸.

→ 밤에 권태로우면 다시 정좌한다 → 취침 등이다(손병욱, 2012 : 47-48).

(3) 안동선비 윤최식 사례

안동 선비 윤최식(1880)의 「日用指訣」은 일과에만 관하여 기록된 독창적인 책으로, 하루 24시간별로 구체적인 일상생활을 기록하고 있다(이성무 외, 2012 : 179-182). 위에서 살폈던 국내,외 선비들의 일과와 대동소이하나 부모 봉양측면과 자녀 교육지도 등이 보다 세밀하게 부각되어 있다.

3. 관료병 힐링 프로그램

여기에서는 위에서 살핀 이론적 측면과 사례분석, 기존의 실행 프로그램을 토대로 오리 스토리텔링의 힐링 프로그램을 정신적 측면의 공부론과 신체적 측면의 수양론적 마음다스리기를 공부론(格物致知)과 수양론(居敬涵養) 측면에서 접근한다. 다산의 교육훈련관도 실무중심, 인성강조, 참여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진중순, 2008 : 73-80).

(1) 교육 측면의 格物致知를 위한 접근

실천 덕목 측면에서는 正義, 正直, 公正(公明正大), 청렴정신 배양이 요청된다(이성무 외 : 40-49). 자기 수양 실천은(이성무 외 : 56-63 ; 210) 신독(慎其獨, 毋自欺), 義와 利의 구별, 尙儉 정신 등이며, 구체적인 본성 잡기(允執厥中)는 본성(誠) 보존(存誠), 道心 다하기(盡心), 人心 절제하기(中節), 마음 주재하기(敬), 氣의 醇化, 求放心, 경건한 생활(居敬) 등으로 차후

체험적 강의와 체험 프로그램이 요청되는 부분이다.¹⁰⁾

유교적 정좌(冥想), 『소학』과 『근사록』, 『주자 전서』, 『논어/맹자』 등과 남명파 퇴계 등의 저술 강의 등과 인성측면의 소양교육은 동양사상과 공직윤리관, 공직병리론 등을 제공한다. 기타 청렴윤리, 청백리사상, 청렴 문화(청렴연수원, 2014.11) 등을 서비스 할 수 있다.

(2) 선비의 居敬涵養 체험 프로그램

첫째, 명상 프로그램 참여 등과 가마니 짜기, 돛자리 짜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다. 오리 묘지나 서원 인근 초지(돛자리 용 왕골 조성)를 조성 체험코스화 하고, 오동나무 숲을 조성(오리 숲)하여 체험케 한다. 서월리 서 오리가 ‘달빛아래 호미로 김 매던’ 스토리텔링 체험코스도 조성한다 (광명시, 내부자료, 2014.9).

둘째, 프로그램에 ‘오리청렴밥상(메, 탕, 적, 술)’ 프로그램 개설이 필요하다. 예시하면 오리탕(채소, 감자, 배추 등), 오리적(맥적 등), 오리술 (광명시, 2014 : 35). 경주시는 경주역에 “돛그릇 육개장”을 특성화 했다. 가능하면 오리시대 식기를 복원하여 활용하며, ‘청백리밥상’체험으로 음식을 통한 탐욕 절제를 체험하게 유도한다.

셋째, 정서적 측면의 서예와 거문고 연주 체험, 음악회 개최 등을 예시할 수 있다.

넷째, 정좌수양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명상이나 요가 등을 체험하게 한다.

10) 광명시의 오리 스토리텔링 마케팅 사례와 정책과제 측면은 이종수(2014. 7) 참조

(3) 실무중심 교육

다산의 교육훈련관도 실무중심, 인성강조, 참여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진중순, 2008 : 73-80). 실무중심 측면은 오리의 목민관, 대민관 등과 분야별 특성에 맞는 전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4) 참여 학습

참여 학습은 동아리 활동과 체험활동 경험 발표 등을 예시할 수 있다. 예컨대 현장체험에 대한 체험담을 그룹별로 나누어 분임 토의하여 공유하는 구조를 모색할 수 있다(이성무 외, 2011).

V. 나가는 글

본고는 2015년 출범하는 광명시 '오리 인성, 청렴체험교육관'의 발전 방안을 미리누린 이론의 공감, 감정이입과 유가적 수양법의 효과 등을 토대로 하여 梧里 청렴체험 힐링 프로그램 제도화방안을 정신적, 물질적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주요 내용은 유가적 심적 수양을 통한 청렴유지와 그 방법, 현대적인 청렴성 제고를 위한 실천방안과 정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직 부패방지과 예방을 위한 공직자의 윤리적 측면의 청렴 대안과 현장적용 방안을 제언하였다. 이들의 내용과 체험 프로그램은 감사원의 직무교육, 청렴위의 주요 프로그램과 현장중심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제도화 한다면 관료병의 예방과 치유 효과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기대 효과측면은 오리청렴도시 이미지 스토리텔링 마케팅을 통한 지역이미지 제고, 인문 스토리텔링을 통한 국민 역사문화 교육에의 기여, 공직자, 기업인 등의 청렴문화 제고와 청렴정신 진작에 기여, 국민의 부정부패 예방심과 경중 역할, 청소년 도덕성 변인으로 자기 통제력 유발 계기 조성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필자의 선행연구 지지 효과와 광명시의 오리 청렴 스토리텔링 마케팅 효과를 통한 도시 마케팅 효과 및 청렴도시 광명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儒家文化的, 理論的 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 지면을 제공하였다. 추후 후속연구과제로서는 관료병 치유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을 위한 신신상관관계 측면의 미러뉴런 접근과 그 효과검증 작업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시하면 관료병과 病名의 구분, 처방 효과, 동, 서양의 심신상관의학과 관료병의 진단, 치유 효과 등에 대한 후속연구가 요청된다.

參考文獻

- 김종록(2014.9). 「대한민국 전통문화의 현장을 탐사하다」, 『21세기 전통문화, 원형과 생성』 문화융성위원회 : 12-22.
- 구미숙(2013). 「장자를 통해 본 상처와 치유, 그리고 자유 : 齊物論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제14집, 제주대 인문과학연구소 : 171-197.
- 광명시(2014.9). 내부자료(오리 인성체험교육관(안)).
- 노순규(2011). 『청렴교육, 국민권익, 움부즈만』 한국기업경영연구원.
- 대한불교조계종(2006). 『치유의 손길』 아름다운 인연.

- 박동서(2002). 『한국행정론』 법문사.
- 박석희·박희주(2013.3). 『관광자원해설 이야기로 풀자』 백산출판사.
- 백완기(1984). 『행정학』 박영사.
- 서광(2014.7). 「머리와 가슴의 조화」, 『운문』제129호, 운문승가대학 : 6-9.
- 석봉래(2014.12). “불교와 신경과학,” 『불교문화』 대한불교진흥원 : 26-32.
- 손병욱(1994). 「남명 ‘경의’ 사상의 기저로서의 정좌수행」, 『남명학연구논총』제2집, 남명학연구원.
- _____ (2012). 「선비의 수양과 삶」, 『남명학』제17집, 남명학연구원 : 37-105.
- 신기원·김시동(2004.8). 『한국인사행정론』 대전 : 도서출판 이화.
- 안병만(2007). 「한국행정의 발전과정과 미래의 방향 : 관료제연구의 통합적 시각의 필요성」, 『하계학술대회논문집』 서울행정학회 : 73-87.
- 우뽀디따(2002). 『바로 이번 생에』 불광출판부.
- 유덕선 역해(2006). 『소학』 홍문관.
- 오동욱(2011.12). 「경북 문화원형의 효율적 스토리텔링화 방안 연구」, 『대구경북연구』제10권 1호, 대구경북연구원 : 29-47.
- 오석홍(2002). 『한국의 행정(제2판)』 법문사.
- _____ (2013). 『인사행정론』 박영사.
- 오인경·손정우·이승복·김혜리(2009). 「자신 혹은 타인의 정서적 상황에 대한 뇌 활성도의 차이 : 관점획득에 관한 신경영상학적 연구」, 『생물신경의학』제16권 제2호 : 159-169.
- 유안 저, 안길환 역(2013). 『회남자(淮南子)』 명문당.
- 이병량(2014). 「관료의 나르시시즘 연구」, 『정부학연구』제20권 1호, 한국정부학회: 5-34.
- 이성무 외(2011). 『선비정신에서 찾는 공직자의 길』(유교문화체험 연수교재). 문화체육관광부, 퇴계학연구원.
- 이연도(2010.3). 「유가공부론과 명상 : 퇴계 ‘활인심방’을 응용한 수양치료모형」, 『한국철학논집』제28집, 한국철학사연구회 : 363-386.
- 이영춘 외(2003). 『조선의 청백리』 가람기획.

- 이정철(2013). 『언제나 민생을 염려하노니』 역사비평사.
- 이중수(2014.3a). 「관료병 스토리텔링 힐링의 명상적 접근 : 예방과 치유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제28권 제1호, 한국공공관리학회 : 167-192.
- _____ (2014.3b). 「관료병의 명상스토리텔링 힐링」, 『감성연구』제8집, 전남대 인문한국사업단 : 81-124.
- _____ (2014.4). “관료병의 유가(儒家) 스토리텔링 힐링 : 우리의 부동심과 ‘영상수직석’을 중심으로,” 『춘계학술대회논문집』 한국정책학회 : 3-23.
- _____ (2014.6). 「관료병의 道家 내면운동 스토리텔링 힐링」, 『하계학술대회논문집』 한국행정학회 : 1-21.
- _____ (2014.7). 「영의정 이원익의 도학적 행정사상 분석 : 梧里의 부동심을 중심으로」, 『하계학술대회논문집』 한국지방자치학회 : 439-459.
- _____ (2014.9.19). 「유가 수양법과 관료병 스토리텔링 힐링 : 남명, 퇴계, 우리의 심신 수양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한국정책학회 : 1-21.
- _____ (2014.9.19.). 「청백리 오리대감이 남긴 가르침」, (세계일보 칼럼).
- _____ (2014.12). 「관료병의 儒家 스토리텔링 힐링」, 『교육연구』 제25집 2호, 강원대 교육연구소 : 29-53.
- _____ (2015.1). 「조선중기 관료병 스토리텔링 힐링」, 『공공조직관리와 행정학교육』 한국국정관리학회 동계학술대회 : 7-24.
- 이진호(2011). 『부정부패 원인과 대책』 한국학술정보(주).
- 자오양 저, 홍성화, 이설영 역.(2009). 『5천년 내력의 중국황실건강법』 살림.
- 장승희(2012.7.). 「남명조식의 선비정신과 도덕 교육 : 의를 중심으로」, 『도덕윤리과학』제36호, 한국윤리교육학회 : 139-169.
- 莊子(1979). 『장자』 동서문화사.
- 정림 저, 윤흥식 역(2009). 『윤흥식의 용호비결 강의』 봉황동래.
- 정학섭(2010). 「유가사상 공부론 수양론의 탐색 : 퇴계의 논의를 중심으로」, 『동양사회사상』제21권, 한국사회사상학회 : 231-260.

- 조규범(2014.1.6). 「국가청렴도 실태와 반부패,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과제」, 『이슈와 논점』 제770호, 국회입법조사처.
- 조남욱(2004.4.). 「조선시대 부패방지책에 대한 철학적 검토와 그 현대적 수용」, 『국민윤리연구』 제55호, 한국국민윤리학회 : 1-37.
- 조준하(1998). 「삼봉 배불론의 현대적 의의」, 『한국사상과 문화』 제1집, 수덕문화사 : 153-166.
- 지영환(2010). 『공무원범죄학』 형설출판사.
- 진중순(2008). 「다산의 관료교육훈련방안에 관한 연구」, 『정부학연구』 제14권 1호, 한국정부학회 : 61-84.
- 차재호(1974). 「사회심리학자의 입장에서 본 조직속의 한국인 - 공무원 사회를 중심으로」, 『대화』 제48권, 한국크리스찬 아카데미 : 17-23.
- 채유정 · 조성배(2014). 「행동선택 네트워크를 이용한 마음이론과 거울 뉴런 기반의 의도 대응모델」, 『2014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671-673.
- 한국개발연구원(2009.10). 『사회적 청렴과 국가경쟁력 간 연관성 분석, 연구』
- 한일조(2010). 「거울뉴런(mirror neuron)과 공감과 도덕교육」, 『교육철학』 제41집, 한국교육철학회 : 521-548.
- 한일조(2012). 「공감에 대한 신경과학적 설명과 그 교육적 함의」, 『교육철학』 제46집, 한국교육철학회 : 259-289.
- 함규진 · 이병서(2013). 『오리 이원의 그는 누구인가』 녹우재.
- 함봉진 · 장선주 · 신용욱 · 조수철.(2010). 「명상치료프로그램의 개발」, 『신경정신의학』 제49권 6호, Nov., 한국신경정신의학회 : 623-627.
- 황경식(2009). 「심신의학의 선구로서의 '동의보감' : 동의보감의 의료철학이 지닌 미래적 가치」, 『한국한의학연구원 논문집』 제15권 1호 : 23-29.
- Caiden, G.E(1993). "A new anti-corruption strategy for Korea," 『행정연구』 제9집, 한양대 행정대학원 : 11-46.
- Caiden, Dwivedi, Jabbara(2001). *Where Corruption Lives*, Kumarian.
- Clark, Evelyn(2004). *Around the Corporate Campfire*, 서정아 역(2008). 『기업을 변화시키는 스토리텔링의 힘 이야기 경영』 연암사.

- Gallese, V., Fogassi, L., & Rizzolatti, G.(1996). "Action Recognition in the Premotor Cortex," *Brain*, v.119 : 593-609.
- Rizzolatti, G., Fadiga, L., Fogassi, L., &(1996). "Premotor Cortex and the Recognition of Moter Actions," *Cognition Brain Research*, v. 3, No, 2 : 131-141.
- Seedhouse, David., & Alan Cribb(1990). *Changing Ideas in Health Care*, New York : John Wiley & Sons.
- Preston, S. & de Waal. F.B.M(2002). "Empathy : Its Ultimate and Proxmate Bases," *Behavior and Brain Science*, Vol.25, 1-72.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www.acrc.go.kr)

전남 장성군 청렴체험센터(<http://icc.jangseong.go.kr>)

Abstract

Ori Integrity Experience Storytelling Healing of Public Service Illness

Lee, Jong-Soo

The article is organized as follows. The first clarifies research questions, the purpose of study and methodology about case study of Ori integrity experience storytelling healing of public service illness. The second deals with methods of study, literature review, previous research and theoretical background of case study of Ori integrity experience storytelling healing of public service illness. Theoretical background is mirror neuron and empathy. The analytical variables of a characteristic Ori integrity experience storytelling healing are seonbi spirit & body experience, so forth. The third presents analysis variables about their characters. The fourth suggests the direction of illness's avarice prevention & healing program. The program contents of suggest are mind discipline, body discipline & business discipline. And there were research effect & limitations for fostering Ori integrity experience storytelling healing storytelling healing. There are healing channel, healing programs, so forth. The last concluded. There are some suggestion, research limitation & expectation effect.

Key Word

Public service illness, mirror neuron, empathy, Ori integrity experience storytelling healing

▪ 논문투고일 : 2014.12.6 심사완료일 : 2015.2.3 게재결정일 : 2015.2.14